KMI

국제물류위클리

KMI International Logistics Weekly

제563호
2020. 9. 2.
www.kmi.re.kr

해운·물류연구본부 국제물류투자분석·지원센터 Tel. +82-51-797-4588 Fax. +82-51-797-4609 •총괄: 김은수 센터장•감수: 박성준 부연구위원

Contents

통계로 보는 국제물류

- 코로나19로 인한 '컨' 물동량 증가율 크게 둔화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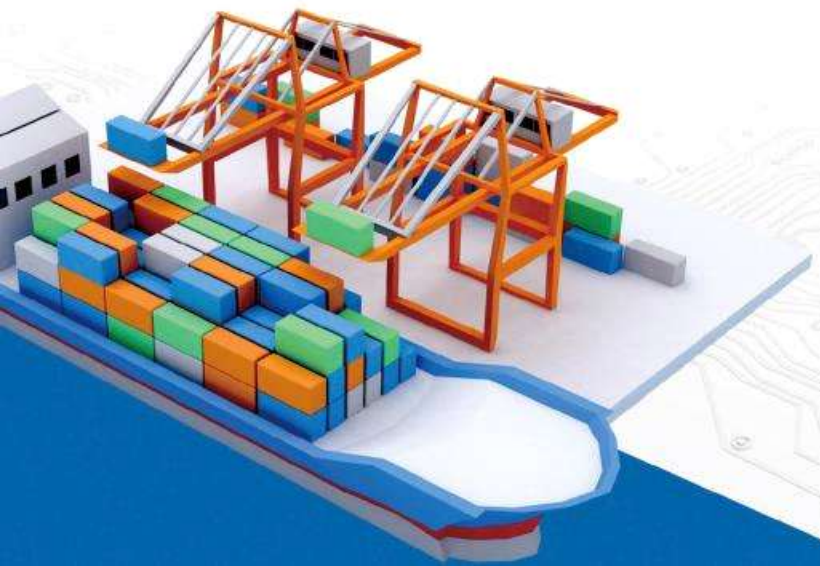
물류정책 · 산업동향

1. 유럽, 친환경 해운 기술연구 선도
2. 쉽체인(ShipChain), 공공 블록체인 플랫폼 출시
3. 미·중 갈등 속 베트남 '어부지리' 지속될 전망
4. 영국 테스코, 온라인 쇼핑 활황에 대비 일자리 추가 창출
5. 신선물류, 건화물 무역량 추월 예상

명사 스피치

"한국판 뉴딜'을 연계해 '스마트·친환경 항만' 조기 구축을 핵심 과제로 삼아 추진할 계획이다. 깨끗하고 안전한 항만을 추구해 온 BPA는 그린 뉴딜을 통해 '배기가스 제로, 미세먼지 없는 안전한 항만'을 완성할 것이다."

부산항만공사 남기찬 사장
(2020. 9. 1 /아시아경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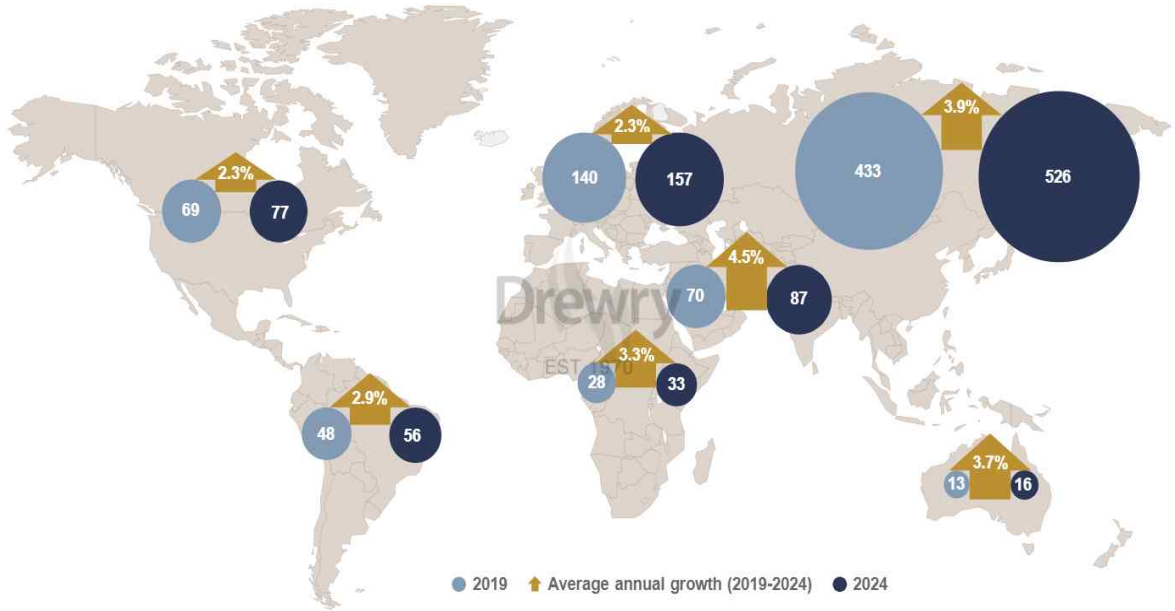
KMI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OREA MARITIME INSTITUTE

통계로 보는 국제물류

코로나19로 인한 '컨' 물동량 증가율 크게 둔화 전망

글로벌 컨테이너 물동량 및 연평균 성장률 전망(2019~2024)

(단위: 백만 TEU, %)



자료 : Drewry's Global Container Terminal Operators Annual Review and Forecast 2020/21

- 드류리의 최근 보고서에 의하면 2019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항만·터미널 컨테이너 물동량은 연평균 증가율 2.1%로 매우 낮은 수준으로 전망됨
  - 연평균 증가율 2.1%는 매년 2천5백만 TEU씩 증가하는 수준으로 과거 연평균 4천만 TEU이상 증가했던 것을 고려하면 증가율이 크게 둔화될 것으로 보임
  - 컨 물동량 전망치가 낮게 나타나는 것은 코로나19로 인한 세계 경제 위축 및 장기화 가능성이 가장 큰 요인으로 분석됨

- 글로벌 터미널 운영사(GTO)는 특정 사업을 제외하고는 투자를 축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현재 진행 중이거나 2021년까지 마무리되는 확장사업 및 그린필드사업도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며, 아직 건설 계약 입찰이나 장비 구입이 진행되지 않은 사업의 경우 지연 및 취소될 가능성이 높음
  - 최근 GTO는 투자 규모를 축소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그린필드 파이프라인 사업과 터미널 자동화에는 지속적인 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글로벌 상위 5개 GTO 지분 기준 '컨' 물동량 및 비중(2019년)

Ranking 2019	Operator	2019 Equity-adjusted throughput (mteu)	2019 % share global port throughput (%)
1	PSA International	60.4	7.5%
2	China Cosco Shipping	48.6	6.1%
3	APM Terminals	46.8	5.8%
4	Hutchison Ports	45.7	5.7%
5	DP World	44.3	5.5%
	Total of top 5 operators:	**245.8**	**30.7%**

자료 : Drewry's Global Container Terminal Operators Annual Review and Forecast 2020/21

- 2019년 GTO 총 물동량은 증가세를 보였으나 개별 운영사 별로 물동량은 편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2019년 Drewry 21개 GTO 기준, 작년 대비 총 지분 기준 물동량(Equity-adjusted throughput)은 4.3% 증가했으며 시장 평균보다 높은 물동량을 기록함
  - 그러나 각각 터미널 운영사 별로 보면 21개 GTO 중에 6개는 평균보다 더 낮은 물동량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비핵심 자산 매각 및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인한 파산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됨
  - PSA는 계속해서 세계 1위를 유지하고 있으나 Hutchison Ports와 DP World는 처리물동량이 감소하여 순위가 떨어짐
  - COSCO와 APM은 처리물동량이 크게 증가하면서 각각 2,3위를 차지하게 됨

참고자료 : www.drewry.co.uk(검색일: 2020.8.31.)

김한나 연구원
051-797-4588, h.kim@kmi.re.kr

유럽, 친환경 해운 기술연구 선도

- 탄소배출제로연대(Getting to Zero Coalition, 이하 GZC)에 따르면, 유럽 내 해운 이해 관계자들이 배기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친환경적인 산업을 만들기 위해 앞장서고 있다고 함
  - GZC는 전 세계 66개 프로젝트를 분석했으며, 이를 통해 관련 산업계가 대체연료 및 친환경 기술을 이용해야 한다고 했음
  - 이 프로젝트들 중 49개는 유럽에서, 16개는 아시아에서 추진한 프로젝트였으며, 유럽에 본부를 둔 프로젝트들이 정부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성공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음

- GZC의 파트너인 글로벌해운포럼의 연구책임자인 캐스퍼 쇠가르드는 정부가 이러한 선도 프로젝트들의 위험을 줄이고 2030년까지 심해 배출제로 선박을 활용하는 것을 지원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함
  - 이러한 프로젝트들의 수용은 관련 산업의 배출제로 전환에 있어 중요한 단계이며, 이미 많은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해운 분야 전체 방향을 보여준 것이라고 덧붙임
  - GZC는 이들 프로젝트가 선박기술 개발이나 연료 생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했는데, 쇠가르드는 대부분의 연료 생산 관련 프로젝트가 친환경 수소연료에 집중하고 있고 이는 수소가 암모니아나 메탄올 같은 다른 연료의 생산을 위한 하나의 빌딩블록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함

- GZC는 해운 산업과 관련된 새로운 파일럿 테스트들이 추진되기를 원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해운 산업의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에 대한 깊은 인사이트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함
  - 동 단체의 목표는 2030년까지 해운 산업을 위한 배출제로 연료 및 기술의 상업화를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 해운 분야 전반에 걸친 이해 관계자들의 긴급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힘

참고자료 : www.porttechnology.org(검색일: 2020.8.31)

강무홍 전문연구원
051-797-4684, mkang@kmi.re.kr

쉽체인(ShipChain), 공공 블록체인 플랫폼 출시

- 쉽체인 주식회사(ShipChain Inc.)은 공급망에 대한 가시성을 높일수 있는 쉽체인 메인넷(ShipChain Mainnet)을 출시했다고 발표함
  - 쉽체인 주식회사는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해운물류 산업부문의 솔루션을 제공하는 업체로서 ScanLog, CaseStack, Zinnovate, ParcelLive 등 공급망 관리 서비스 제공업체들과 파트너쉽을 맺고 있음
  - 쉽체인은 전체 공급망에 걸쳐 모듈식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중요한 이정표로서, 공급망 의사 결정자들이 다양한 운송 모드에서 거래할 수 있는 블록체인의 잠재력을 실현해줄 것이라고 기대감을 밝힘

- 쉽체인 메인넷은 운송 및 물류산업에서 필수적인 거래 용량(transaction capacity)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중개자 없이 전세계 누구와도 거래할 수 있도록 지원이 가능
  - 쉽체인 메인넷은 세계 최대 및 글로벌 기업 수준의 공급망 추적 및 거래를 지원할 수 있으며, 트랙 앤 트레이스(track and trace) 블록체인 기반 시스템으로 공급망에 대한 투명성과 가시성을 제공할 수 있음
  - 아울러 기존 메인넷 이용시 이용자가 느끼는 혼잡을 피할 수 있고, 비용 절감도 가능함
  - 또한 개별(private) 블록체인이 아닌 공공(public) 블록체인을 활용함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은 공공 블록체인 내에서 개인정보를 매우 쉽게 보호할 수 있으며, 거래대장도 영구적으로 보존할 수 있음

- 쉽체인 주식회사의 최고경영자인 존 모나크(John Monarch)는 “우리는 메인넷에서 제공하는 상품을 지속적으로 개발 및 강화하며, 더 안전한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힘

참고자료 : www.porttechnology.com(검색일: 2020.9.1)

김영훈 연구원
051-797-4668, kyh@kmi.re.kr

미·중 갈등 속 베트남 '어부지리' 지속될 전망

- 미국과 베트남 간 수출입 규모가 꾸준히 증가하는 등 양국의 무역 협력이 지속되고 있음
  - 1995년 미국과 베트남의 관계 정상화 이후 올해 수교 25주년을 맞이한 양국은 '19년 기준 770억 달러의 무역 규모를 기록하는 등 관계를 강화하고 있음
  - 2019년 기준 베트남의 대 미국 수출액은 612억 달러로 전년 대비 약 29% 증가하였으며 전체 수출액 가운데 약 23%를 차지함. 미국 또한 대 베트남 수입규모가 145억 달러로 전년 대비 약 13% 증가하는 등 양국의 무역규모는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양국의 주요 수출입 품목으로는 전자·전기제품, 의류, 농산물 등이 대표적임

- 미-중 무역분쟁으로 미국이 베트남과의 교역에 규제를 가하는 등 관계 악화가 예상되었으나, 베트남은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중국을 대체할 시장으로 성장하고 있음
  - 2018년 5월 미국은 중국에서 생산되어 베트남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철강 제품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였으며, 이 외에도 지적 재산 보호 및 식품 안전 규정 등 무역 활동을 제한하는 규제를 강화하였음
  - 관세 회피를 목적으로 중국에 생산 기반을 마련했던 미국 기업들은 제조시설을 베트남으로 이전하기 시작하였으며, 미-중 무역분쟁이 지속됨에 따라 이러한 현상은 더욱 가속화됨
  - 애플, 인텔, Qualcomm, UAC(Universal Alloy Corporation), 나이키 등이 생산 시설을 중국에서 베트남으로 이전한 대표적 기업이며, 해당 기업들은 지리적 접근성 및 연결성, 노동력, 무역협정 등을 이전 요인으로 언급함

- 2019년 12월 미-중 무역 합의 등 관계 회복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음에도 미국 주요 기업들의 베트남 이전 행렬은 꾸준히 이어질 것으로 전망됨
  - 구글은 베트남 내 스마트폰 생산 거점을 구축할 계획이며, 인텔과 UAC는 각각 호치민과 다낭에 하이테크 파크, 제조공장 설립에 투자하는 등 베트남 시장 내 거점 확보 및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추세임
  - 해당 기업 관계자에 따르면 미국 기업들의 베트남 투자 확대는 단지 미-중 무역분쟁에 의한 일시적인 현상이 아닌 베트남이 보유한 글로벌 공급사슬 경쟁력 향상의 반증이라고 강조함

- 향후 글로벌 기업들의 베트남 투자동향 및 제조시설 이전 등에 따른 글로벌 공급사슬 내 베트남의 위상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참고자료 : www.vietnam-briefing.com(검색일: 2020.8.31.)

김동환 연구원
051-797-4913, kdong@kmi.re.kr

영국 테스코, 온라인 쇼핑 활황에 대비 일자리 추가 창출

- 최근 영국 최대 슈퍼마켓인 테스코(Tesco)는 급증하는 온라인 비즈니스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16,000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임을 밝힘
  - 테스코는 코로나19 이후 이미 4,000 개의 일자리를 창출한 바 있음
  - 이번에 발표된 추가 채용 계획은 코로나19로 침체되어 있는 영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테스코는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될 당시 임시로 고용됐던 근로자에게 정규 일자리를 먼저 부여할 예정이며, 주문, 배송, 유통센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임

- 현재 테스코는 매주 약 150만 명의 온라인 고객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코로나19가 시작될 당시에는 약 60만 명의 수준이었음
  - 팬데믹 이전에는 전체 매출의 약 9%가 온라인에서 이루어졌으나 지금은 16% 이상으로 급속 성장함

- 영국 대표 Jason Tarry는 이번 채용은 장기적으로 자사의 온라인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함
  - 지난 3월 영국 전역이 봉쇄되면서 온라인 식품 판매가 급증했으며, 관련 업체들은 이를 계기로 일부 소비자들의 구매 습관이 영구적으로 온라인으로 전환할 것이라 전망하고 있음
  - 지난 7월 아마존이 런던과 주변 지역의 프라임 회원들을 대상으로 무료 식품배송 제공을 공식 발표한 바 있으며, 이는 온라인 쇼핑에 대한 수요를 더욱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됨

- 현재 영국 근로자들은 지속적인 실업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3월 이후 약 73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진 것으로 조사됨
  - 때문에 테스코의 이번 일자리 창출 계획은 영국 노동자들에게 환영받고 있는 상황임

- 테스코는 향후 온라인 비즈니스의 성장세에 발맞춰 일자리를 추가 창출할 계획임을 밝힘
  - 또한 테스코는 정부 보조금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25세 미만의 근로자 1,000 명을 대상으로 6개월간의 근무 경험을 제공할 계획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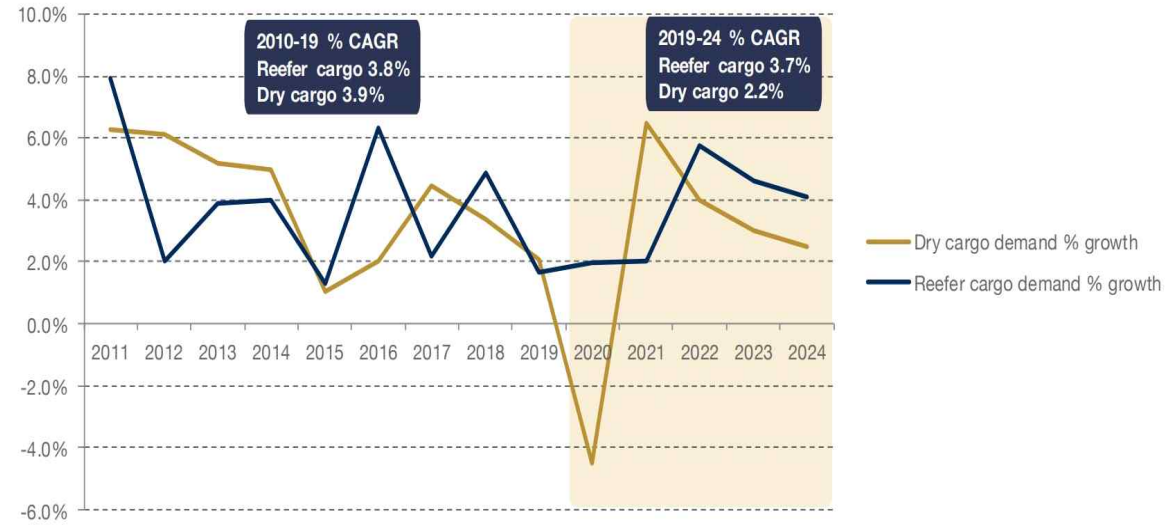
참고자료 : www.edition.cnn.com(검색일: 2020.8.24.)

이기열 부연구위원
051-797-4670, kylee@kmi.re.kr

신선물류, 건화물 무역량 추월 예상

- 지속되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신선물류(Reefer shipping) 산업은 냉동·냉장 컨테이너 장비 수요 부족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 됨
  - 드류리(Drewry)는 신선물류 시장의 수요증가는 코로나19 영향이 지속됨을 반증하는 결과로 2010~2019년 건화물시장 연평균 증가율은 약 3.9%로 신선화물시장 연평균 증가율인 3.8%에 다소 앞서 있지만, 2019~2024년 신선화물시장 연평균 증가율은 3.7% 수준으로 건화물시장 연평균 증가율인 2.2%를 앞설 것으로 전망함
  - 2019년 전 세계 컨테이너선이 운송하는 신선화물은 전년 대비 3.4% 증가한 530만 FEU를 기록하였으며, 2024년까지 약 5%에 달하는 연평균 성장률을 이어나갈 것으로 전망됨
  - 냉동·냉장 컨테이너로 운송되는 신선화물 중 바나나와 생선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 아프리카 돼지열병 등의 영향으로 아시아 지역의 신선화물, 특히 단백질 화물 관련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
  - 미·중 무역분쟁으로 인해 태평양 지역에서의 신선화물 무역량은 감소하였지만 남미-아시아 지역 간 신선화물 무역량 증가 및 이들 지역에서의 수요 증가로 전체 신선화물 무역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한편 신선화물 수요의 증가와 더불어 신선화물 해상운송 무역 불균형 등으로 향후 냉동·냉장 전용 컨테이너 장비의 수급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함

건화물시장 대비 신선화물시장 성장률 전망 비교



출처: Drewry's Reefer Shipping Annual Review and Forecast 2020/21

참고자료 : www.drewry.co.uk(검색일: 2020. 8. 31)

이주원 전문연구원
051-797-4667, peterlee@kmi.re.kr